

■ 주요 뉴스: 미국 주요 공식 경제지표 발표 연기로 민간통계에 주목

- 미국 의회, 임시예산안 재표결(6일) 추진. 부결 시 섰다운 장기화 우려 확대 예상
- 일본 자민당 신임 다카이치 총재,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 전망
- OPEC+, 금년 11월 이후 일일 13.7만배럴 원유 증산에 합의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섰다운 우려 속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09%], 달러화 하락[-0.4%], 금리 하락[-6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인하 기대, AI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및 의약주, 방산주 강세 등으로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섰다운, 9월 민간고용 부진 및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 가치는 1.4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 둔화 우려, 섰다운 불확실성 등이 배경
독일 ECB 정책 완화 기대, 미국 국채시장 동조 등으로 하락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, 10/2일 종가 기준) 0.9% 하락. 한국 CDS 하락

		10/3일	9/26일	전주말대비			10/3일	9/26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6,715.8	6,643.7	+1.09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2%	4.18%	-6bp
	유럽	570.45	554.52	+2.87%		독일	2.70%	2.75%	-5bp
	중국	휴장	3,828.1	-		영국	4.69%	4.75%	-6bp
	일본	45,770	45,355	+0.91%	CDS 5y	한국	24bp	25bp	-1bp
	한국	휴장	3386.1	-		중국	38bp	38bp	0bp
환율	달러지수	97.72	98.15	-0.44%	위험 지표	EMBI+	287	347	-60bp
	유로화	1.1742	1.1703	+0.33%		VIX	16.65	15.29	+8.89%
	엔화	147.47	149.49	+1.37%		WTI유	60.88	65.72	-7.36%
	위안화	휴장	7.1345	-	원자재	구리	510.9	471.6	+8.34%
	원화	휴장	1,412.4	-		금	3,886.5	3,760.0	+3.3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ì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요 공식 경제지표 발표 연기로 민간통계에 주목

- 연방정부 섯다운이 6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금주 발표예정인 8월 무역수지와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발표가 연기될 전망.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0월 미시건大 소비자심리지수, 기대인플레이션(예비치) 결과 등에 주목할 가능성
- 다만 섯다운이 신속히 종료되면 9월 비농업고용 수치 등 지연된 보고서가 금주내 발표될 수 있으며, 섯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파월의장이 재조정(recalibration)이라고 표현한 금리인하 관련 세부 논의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
- 한편 Moody's 수석 이코노미스트 Mark Zandi는 Revelio Labs, ADP 등 민간 고용통계를 감안할 때 9월 한달 간 사실상 고용증가는 없었다고 분석. 특히 ADP 민간고용 수치(-3.2만)는 공공부문 고용감축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소폭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로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의회, 임시예산안 재표결(6일) 추진. 부결 시 섯다운 장기화 우려 확대 예상

-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섯다운 기간 의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상원에서 민주당 합의를 압박
- 10.6일 상원의 임시예산안 재표결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확대, 의료비 보조금 연장 등에 대한 양당의 협상 진전은 미흡. 재차 통과에 실패할 경우 섯다운 장기화 우려가 확대될 소지
-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(ACA) 보조금 연장 등은 임시예산안(CR) 先통과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섯다운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고 강행 시사
- 한편 섯다운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(CBS/유고브), 응답자의 39%가 이번 사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대답했으며, 민주당 30%, 양당 모두 31%로 답변.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전월 44%에서 42%로 하락

■ 일본 자민당 신임 다카이치 총재,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 전망

- 집권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는 선거 기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해왔으며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일본은행(BOJ)이 아닌 정부가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
- 향후 완화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노선으로 일본 초장기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전망이 강화. 특히 작년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(BOJ)의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만큼 총리 취임 이후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

■ OPEC+, 금년 11월 이후 일일 13.7만배럴 원유 증산에 합의

-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, 아랍에미리트 등 8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+는 낮은 재고수준, 안정적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11월 증산을 결정했다고 성명
-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폭 확대를 지지했으나, 러시아 측의 공급과잉에 따른 유가 하락 우려 등으로 증산 규모가 예상보다 제한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

■ 독일 정부 추계 경제 전망, 올해 성장률 0.2%로 상향 조정 예상

- 독일 경제부 장관, 추계 경제전망에서 금년 성장률을 종전 0%에서 0.2%로 상향 제시할 예정이며 26년과 27년 각각 1.3%, 1.4% 성장 전망. 이는 주요 연구기관들의 예측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

■ 호주와 뉴질랜드, 단일 경제시장 신속 추진 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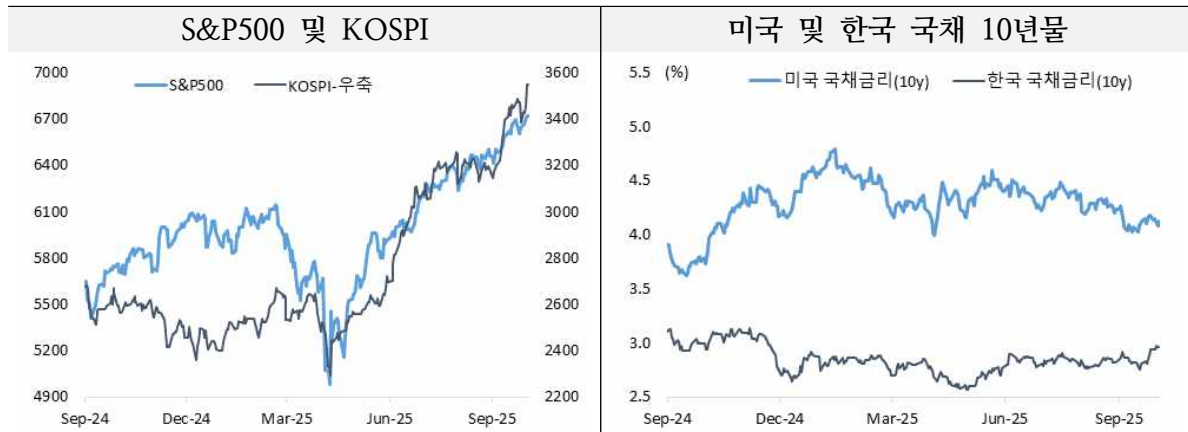
-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 무역 대표 회담을 통해 경제 통합과 기업활동 장벽 축소를 목표로 하는 단일시장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성명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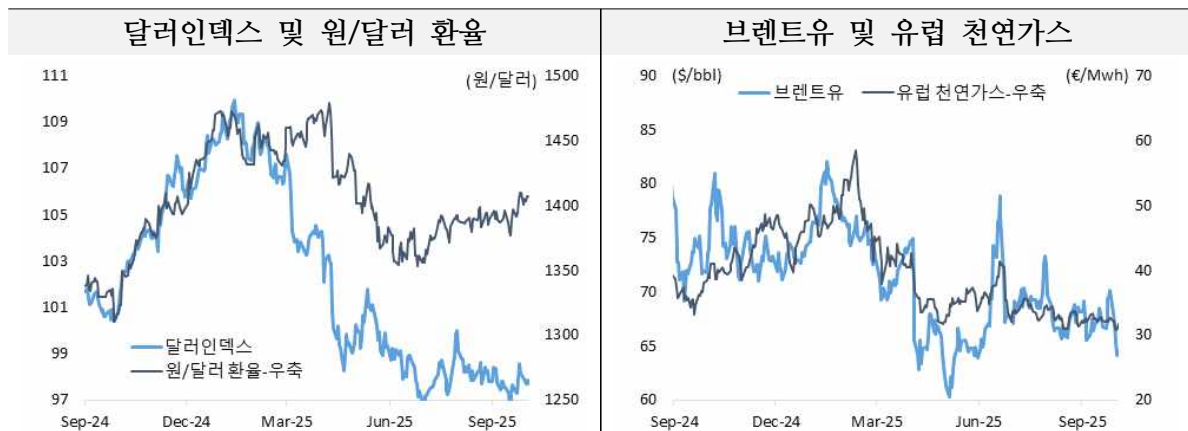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6일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8월 소매판매, Sentix 투자자 신뢰지수, 독일 건축 PMI 등
- ECB 라가르트 총재, 권도스 부총재 연설. BOE 베일리 총재 연설 등
- 한국(~9일)/중국(~8일) 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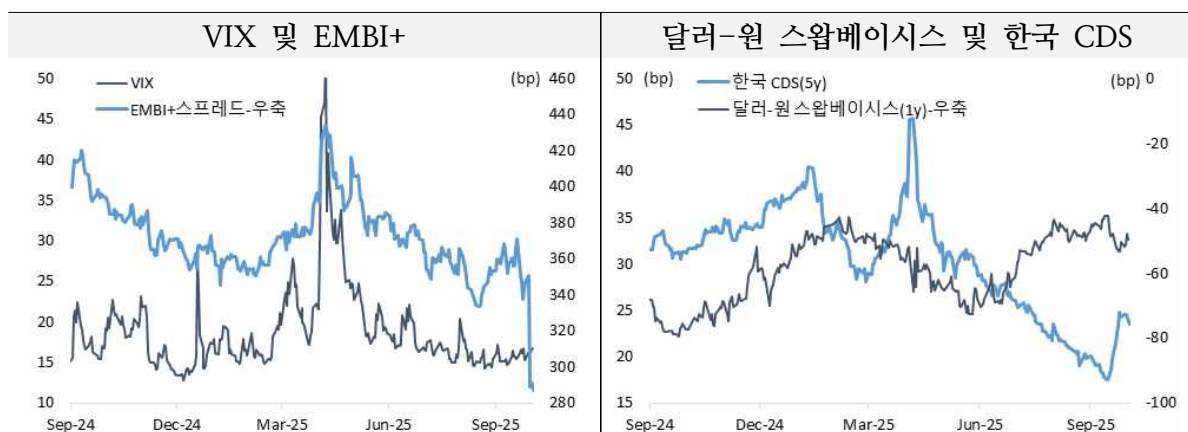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@kcf.or.kr